

사회복지시설 탐방 ㉓ 수화통역센터 센터장 전민덕

농아인과 정상인의 교류 위한 창구



(사)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포천시지부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들의 권익을 찾고, 들을 수 없기에 겪어야 하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농아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소했다.(왼편은 전민덕 센터장)

“농아인이기에 겪는 어려움을 수화통역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포천시지부 수화통역센터(센터장 전민덕, 이하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들의 권익을 찾고, 들을 수 없기에 겪어야 하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농아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소했다.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84번지 3층에 위치한 수화통역센터는 지난 2월 1일 정식 등록한 장애인 신고시설로 4월 내촌면 마명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2004년 1월 발족된 (사)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포천시지부의 점민덕(62) 지부장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수화통역센터에는 전민덕 지부장과 김명희 실장을 포함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민덕 센터장이 농아인협회를 포천에 설립하고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게 된 데는 자신도 농아인이기에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센터장은 3세때 열병으로 인해 말을 잃었고, 포천시 내촌면의 농아인 보호시설인 운보원에서 30여 년간 농아인들을 위해 근무했다.

전 센터장은 먼저 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할 수 있게 도움을 준 남사당재활원과 효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남명규 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고 있는 남 목사의 배려로 현재의 사무실에서 센터를 시작하게 됐다”며 “임대비와 관리비의 일부라고 해도 드리고 싶지만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8월 현재 포천 관내의 농아인은 총 572명으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지만 특히 운천 지역에 만 98명이 거주해 가장 많은 수를 보인다.

전 센터장은 신북면에 센터를 개소한 데는 포천의 중심에 센터를 설치해 많은 농아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도 보인다.

“센터가 길가에 위치해 찾기도 편리 뿐 아니라 관내 농아인들을 찾아다니며 각종 교육 및 계몽, 홍보활동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 현 위치에 자리했다”고 밝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센터장은 후천성 농아인으로 성장하면서 농아인이기에 겪는 역olum한 사연들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기도 했다.

전 센터장은 “농아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불편은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라며 “농아인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글씨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문맹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서에 의한 사기를 흔하게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소후 아직 미흡한 후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며 “후원 개발을 통해 센터가 펼칠 수 있는 농아인 교육 및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수화통역센터의 주 업무는 농아인의 권익 대변이지만, 정상인들의 농아인에 대한 이해와 수화보급을 위한 수화교실 등을 개설해 알리는 데 주력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갈월 중학교와 일동중학교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서와 소방에 수화교육을 확대 보급시켜 관공서를 찾는 농아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화교실의 수강료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아인 사업에 쓰이게 된다.

한편 전 센터장은 정상인과 농아인의 적극적인 교류를 당부했다.

“사회는 소수인 농아인이지만 정상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센터는 앞으로 농아인과 정상인이 교류하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 : 농협 579-01-026138 (예금주:수화통역센터) 문의 : 031-534-8876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늑대의 죽음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에스키모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늑대 사냥법이 있다. 얼음바닥에 짐승의 피를 적신 날카로운 칼을 꽂아 놓으면, 그 냄새를 맡은 늑대가 다가와 그 칼을 핏기 시작한다. 칼날 위에 얼어붙어 있던 피를 모두 핏내내고, 결국 날카로운 칼날을 핏게 된다.

칼날에 허가 베이는데도 피맛에 취한 늑대는 그 피가 자신의 피인 줄 모르고 계속 핏고 또 핏고 만다. 조금씩 어지러워지는데도 계속 늑대는 자신의 피를 다 핏내며 서서히 죽어 간다고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리석은 늑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을 알게 된다. 명예와 권력이라는 욕망의 덫과 문명이라는 이기주의의 종속성과 작게는 개인의 내태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든 욕망들, 그 이면에는 이렇듯 항상 무서운 칼날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욕망의 안락함과 달콤함만 생각하지 그 이면의 칼날에 대해서는 외면하려는 것이 사설이다.

하지만 어쩌랴 그 욕망의 이면에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한 칼날이 숨어 있는 것을...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의미 갖소 새마을이웃

포천시홀스타인 경진대회

9월 9일은 우리부부의 결혼 15주년 되는 날이면서 포천시 홀스타인 경진대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낙농검정회에서 주최하며 목장에서 명예를 걸고 젓소를 출품하여 경합을 벌입니다. 출품되는 소는 몇 주전부터 훈련을 받고 깨끗하고 맛있는 소를 목장 관리하는 분의 정성과 사랑으로 변합니다.

각 목장에서 출품되는 젓소 육성우 등 목장 주인은 포천종합고등학교 행사장으로 아침에 서둘러 향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소가 그랜드 챔피언이 되었으며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천여성분과낙농우위원회 임원진인 저는 우수요리홍보를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낙농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중요합니다.

우유가 우리몸에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의 건강식품인지 소비자들에게 우수요리 시식홍보를 해

서 쉽게 가정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유방수, 우유 요구르트, 우유 쿠폰, 우유 빈대떡 등 우수요리를 만들어 이날 행사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홀스타인 품평회에는 우리 목장 젓소도 출품되어 경합을 벌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유망생산, 분만간격, 체세포관리, 젓소개량 등 목장관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젓소관리를 해하겠습니다.

그랜드 챔피언 상을 받게될 목장, 사장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목장사장님 다음 기회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낙농인 여러분 하이팅!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가산면 금현리

관인의소대, 한탄강 정화 앞장

내정2리 군탄교~모래내유원지 구간 정화활동



관인면의용소방대는 지난 24일 한탄강 내정2리 군탄교에서 모래내유원지 구간 약 5.5km에서 강가 주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관인면의용소방대(대장 안윤빈)는 지난 24일 한탄강 내정2리 군탄교에서 모래내유원지 구간 약 5.5km구간에서 강가 주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국토대청결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정화작업은 휴가철에 행락객들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가 잦아들며 강가 주변에 방치된 것을 수거한 것으로 관인의용소방대원 26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이날 수거된 쓰레기는 80kg 마대 75개와 중형마

대 60여개 분량으로 3개소로 나누어 수거작업을 실시했다.

관인의용소방대 관계자는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 배양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포천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곳으로 이번 정화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정화활동을 위해 레프팅보트 3대를 협찬한 문암레저 관계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의제21 통합분과 회의 및 단합대회



맑고 푸른 포천의제21(협의회장 윤순옥)은 지난 23일 일동면 북골가족복지관에서 통합분과회의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맑고 푸른 포천의제21(협의회장 윤순옥)은 지난 23일 일동면 북골가족복지관에서 통합분과회의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의제위원간 향후 의제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의제실천의 단합된 힘을 고양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포천의제21 기획홍보, 환경생태, 문화복지, 산업경제 분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통합분과 회의를 통해 분과별 현안사항 토의 및 회원간 친목과 단합을 위한 추경대회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윤순옥 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분과위원간의 단합과 친목도모가 이뤄질 바란다”며 “앞으로 의제21은 위원간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포천의제21은 2000년 포천군 환경기본조례(제1697호)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15일 창립해 기획홍보분과, 환경생태분과, 문화복지분과, 산업경제분과 4개의 의제실천분과를 중심으로 의제21 실천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해야

청소년들이 외롭지 않게 가정과 사회가 앞장서야

“지난 1년동안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으로서 바뀐 것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던 현실에서 포천시를 포괄적으로 보게되고 무언가 의미 있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자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2년째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희숙(37·내촌면 읍현리) 부단장의 말이다.

최 부단장은 “이제 주부명예기자단 스스로 문제도 제기하고 그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갖추어 기획하고 성취하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그 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희숙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포천신문이 추진했던 불우이웃돕기 운동입니다.”

지난 8월11일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2기 부단장으로 취임한 권귀자(42·일동면 기산리) 부단장의 말이다.

이때 권귀자 부단장은 일동·화면·이동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쌀과 성금과 옥매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다.

권 부단장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포천신문사에 박수를 보내며 함께 남을 돕는 일에 더욱 노력하기 위해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에 입



권귀자

“포천시는 교통문제 해결해야 한다”

일동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특히 주부명예기자단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이 의견이 포천신문에 적극 반영되어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촌에서 태어난 최 부단장은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부명예기자단이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 부단장은 미국이 각기 다른 인종의 집합체이지만 세계 으뜸국가로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 있듯이 우리사회도 각자의 영역에서 남치는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최 부단장은 포천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교통문제를 들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천 발전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동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 부단장은 집안사정 등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함께 산책을 한 적이 있다며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가만히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에도 6천여명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서 회개기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일동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참가하여 큰 체험의 기회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주부명예기자단 제1기 이동면지부장으로 활동한 권 부단장은 “불우이웃돕기 운동에는 적극 나섰지만 기사작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제2기가 시작된 만큼 기사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동시립도서관이 건축되면 일동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문화적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일동면 주민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세계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매우 절실한 소망이 현실에 구체화되기를 기대하며 보다 역동적인 주부명예기자단 활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태극기 게양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이병업 회장은 “아직도 시민들의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국경일 태극기 달기를 계도해 시민과 관공서의 태극기 달기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태극기 게양 방법으로는 ▶ 국기는 광복절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계속 게양 ▶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강하 ▶ 국기게양 방법(집밖에서 볼 때)으로는 일반주택은 대문중앙이나 왼쪽계양,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 계양, 주택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계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국기게양은 나라사랑의 실천”

바르게살기운동 광복60주년 맞아 태극기 달기 홍보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소흘읍 송우리 금유리에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을 펼쳤다.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업)는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운동으로 지난 12일

소흘읍 송우리 금유리 금유리 아파트와 신원동 일대에서 각 읍·면·동위원 회위원장 및 위원과 포천고등학교 학생 등 60여명이 참가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 살기포천시협의회에서 준비한 가정용 태극기 500개를 게양하고 전단지 4천매를 제작해 상가나 행인들에게 배포하며 나라사랑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위해 방범활동 펼치겠다”

화현자율방범대 발대식, ‘화현파출소 설치 절실’

화현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화현치안센터에서 발대식 및 신입연재관 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구성된 화현자율방범대는 7개소 35명으로 매일 20시부터 24시까지 13개의 야간 순찰 활동, 인삼발, 수해 위험지구 순찰 및 응급환자호송, 환경감시 활동, 혼잡 경비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연재관 대장은 취임사에서 “화현면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재 출범하는 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방범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며 “별도의 파출소가 없어 치안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동면파출소 관할의 현재 체제를 변경, 화현파출소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현자율방범대는 1988년 초대 이종하 대장으로부터 2대 조성현 대장, 3대 이수영 대장, 4대 김중호 대장, 5대 송호천 대장으로 이어졌지만, 2003년 지역경찰제에 의



화현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화현치안센터에서 발대식 및 신입연재관 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 지침으로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바뀌자 대원들의 근무의욕상실 등 사실상 해산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화현자율방범대 재발대를 위한 간담회(추진위원회 발족) ▶6월 22일 방범대 발대회의(방범대장 연재관 선출, 임원진 구성) ▶7월 12일 야간차량 순찰개시 ▶7월 30일 지현 미술축제 행사지원의 과정을 거쳐 발대식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은국 포천시장, 김영배 포천경찰서장, 이창열 화현파출소장, 화현자율방범대 대원 30여명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새마을지도자 화합의 한마당 마련

내달 6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지회장 강태선)는 내달 6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2005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새마을지도자간의 상호정보교환과 단합의 시간을 통한 재충전, 정신교육을 통해 지도자로서 사명감 고취, 새마을운동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수련대회는 관내 남·여 새마을지도자, 문교지도자, 새마을관련인사 8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련회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2005년 사업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추진계획 소개, 개회식, 체육경기(터치볼/육상) 및 화합의 한마당 노래자랑 등 단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